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12.20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0.2	1.6	-3.9	-7.7	10.9	10.9	1.2	1.2	1.7	1.7	<p>SKT 43.9% (+0.4%p WoW, Flat MoM) KT 43.6% (+0.2%p WoW, -0.3%p MoM) LGU+ 35.2% (+0.3%p WoW, +0.9%p MoM) 통신3사, 외국인 순매수세 기록</p>
통신업종	6.5	4.6	3.7	-1.5	6.9	6.9	0.6	0.6	4.9	4.9	
SK텔레콤	9.1	14.0	17.3	8.1	5.8	5.8	0.6	0.6	5.3	5.8	
KT	4.5	4.2	-0.6	-1.1	8.2	7.8	0.6	0.5	5.2	5.6	
LG유플러스	4.0	4.3	-0.7	-5.9	8.4	7.9	0.8	0.7	3.9	4.4	
AT&T	4.1	-2.5	-13.6	-17.0	7.1	7.5	1.0	1.0	8.8	8.1	
Verizon	5.9	3.8	-2.0	-4.7	9.9	9.9	2.8	2.3	4.8	4.9	
T-Mobile	4.4	2.4	-6.4	-17.2	52.3	38.2	2.2	2.1	0.0	0.0	
NTT	4.6	1.4	-1.8	13.1	12.9	10.2	1.4	1.4	3.2	3.5	
KDDI	2.7	0.4	-11.6	-1.6	12.0	11.6	1.7	1.5	3.5	3.7	
Softbank	-0.7	-20.1	-17.7	-30.0	2.4	7.1	1.2	0.8	0.8	0.9	
China Mobile	0.5	-1.9	-2.8	-1.9	6.8	6.4	0.6	0.6	7.9	8.7	
China Unicom	0.5	-3.5	-4.7	-6.5	6.4	5.9	0.3	0.3	8.1	9.8	
China Telecom	0.4	-3.1	-3.1	9.0	6.9	6.8	0.4	0.4	8.6	9.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2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6.3%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외국인 지분을 상승과 배당 시즌 돌입으로 방어주로서의 통신주 매력 부각
삼성전자, 베트남 최대 통신사인 비엠텔과 5G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T, LGU+순매도. 외국인인은 SKT, KT,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사업 다각화 및 배당 매력 부각으로 2022년 통신업종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전망
최선호주는 2022년 연결 자회사들의 사업 성과가 기대되는 KT
5G 통신장비주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객사 확보로 업황 개선 전망. 서진시스템, RFHIC 선호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 주간 뉴스

▶ '130년 통신' KT, 비통신 6대사업으로 매출 50% 잡는다 (전자신문)

- KT,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2025년까지 비통신 사업 매출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릴 계획
- KT는 2017년부터 전체 매출은 연 1% 성장에 그쳤지만 비통신 관련 매출은 연평균 15.1% 성장
- 현재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ABC)를 중심으로 14대 핵심 DX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
- ⇒ 비즈니스 모델로는 AI컨텐츠(AICC), 시로봇, 물류, 차세대 스마트교통망, 산업안전, 에너지 6가지
- ⇒ 이 중 AICC는 챗봇과 보이스봇 서비스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연매출 5,000억원 달성할 계획

▶ 단통법 추가 지원금 30% 법안 국회의 통과 (ZD Net Korea)

- 단말기 유통법에서 유통점의 추가 공시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 국회의 통과
- 현재 이동통신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
-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치면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
- ⇒ 과거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후보들은 통신비 인하를 필수적으로 정책 공약에 포함
- ⇒ 대통령선거를 앞둔 만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선 이후 통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바람직

▶ SK텔레콤 'T우주' 구독 가입자 100만 돌파 (전자신문)

- SK텔레콤의 T우주 구독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인 11월 기준 100만명 돌파
- SK텔레콤은 통신사 최초로 총 18개 이상 기업과 제휴, 패키지형 구독서비스 상품인 T우주를 출시
- T우주는 타사 가입자도 가입해 여러 서비스 이용 가능, 현재 타사 가입자 비중은 약 30%
- ⇒ SK텔레콤은 T우주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2025년까지 가입자 3,600만명, GMV 8조원 이상 목표
- ⇒ 또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를 통한 신사업 진출 및 제휴 확대를 지속할 전망

▶ 삼성전자, 베트남 최대 통신사 돌았다...5G 장비 공급 (디지털데일리)

- 삼성전자, 5G 네트워크 장비 고객사로 베트남 최대 통신사인 비엠텔과 5G 장비 공급 계약 체결
- 삼성전자와 비엠텔은 다낭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개시 중. 다낭은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
- 비엠텔은 베트남 최대 통신사로 다낭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 11개 지역에서 5G를 제공 중
- ⇒ 코로나로 인해 기존 예정보다 늦춰졌던 각 국의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서 5G 입찰 개선 전망
- ⇒ 5G 통신장비주는 플러스 알파(a)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서진시스템, RFHIC 선호

▶ '화웨이, 5G 특허 점유율 전세계 1위' (ZD Net Korea)

- 화웨이가 5G 특허 점유율 15.93%로, LG전자, 삼성전자, 퀄컴 등 경쟁업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
- 화웨이에 이어 LG전자(10.79%), 삼성전자(10.55%), 퀄컴(10.44%), 노키아(9.74%) 순
- 5G개발과 혁신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서 화웨이가 21.64%의 기여도를 보이며 1위를 차지
- ⇒ 5G 분야의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로 발생된 글로벌 수익은 지난해 기준 약 200억 달러
- ⇒ 향후 5G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와 같은 산업군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

▶ KT SAT, '저궤도 위성사업 위해 지역사업자 간 동맹 강화 필요' (전자신문)

- KT SAT, 저궤도 위성사업 관련 LEO 얼라이언스 결성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 KT SAT은 위성용량 확보를 위해 HTS 위성뿐 아니라 저궤도 위성사업에도 참여할 예정
- 또한 저궤도 군집위성 설계 포함 주파수 및 궤도 사용을 위한 국제전기통신연합 파일링도 완료
- ⇒ 저궤도 위성사업은 글로벌 대형 IT기업을 포함 다수 위성사업자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 예상
-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사업자 입장에서 다중 궤도 위성 통신을 통한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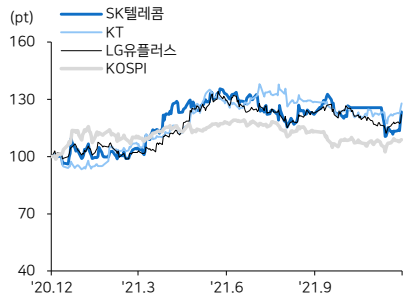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55,800	10.3	16.7	16.5	1.3	1.5	2.0	1.8	4.8	4.9	4.1	4.0	9.8	8.6
	KT	30,950	6.8	21.0	21.7	1.3	1.4	0.9	0.9	4.4	4.5	3.0	2.9	7.3	7.4
	LG유플러스	13,900	5.1	11.7	12.2	0.9	1.0	0.6	0.7	2.9	3.1	3.6	3.5	9.8	10.0
미국	AT&T	22.8	163.1	167.2	155.7	30.5	31.9	23.6	22.1	52.3	51.0	6.5	6.7	13.5	12.6
	Verizon	50.2	210.7	133.4	132.1	32.5	32.9	22.6	22.3	48.4	49.3	7.3	7.2	29.8	26.1
	T-Mobile	114.8	143.4	80.2	82.4	6.9	9.0	2.8	4.0	26.8	27.7	8.1	7.8	4.5	5.2
일본	NTT	3,086	98.6	108.2	107.3	15.1	15.6	8.4	9.9	29.0	29.1	6.1	5.8	10.8	14.6
	KDDI	3,334	67.8	48.5	48.0	9.6	9.4	6.0	5.9	16.3	16.0	5.1	5.0	14.5	13.8
	Softbank	5,518	83.9	50.9	53.5	49.9	6.5	37.1	11.7	50.0	#N/A N/A	5.0	#N/A N/A	39.3	14.3
중국	China Mobile	46.2	121.3	133.2	140.8	18.8	20.2	18.1	19.7	48.8	50.8	1.0	1.0	9.6	9.8
	China Unicom	3.8	15.1	51.2	53.8	2.0	2.3	2.4	2.7	15.2	15.8	0.8	0.8	4.5	5.1
	China Telecom	2.5	58.6	68.5	73.5	5.1	5.5	4.0	4.3	19.9	21.0	2.7	2.6	6.5	6.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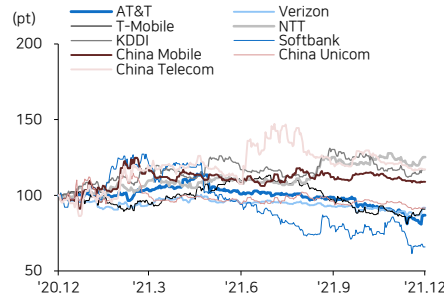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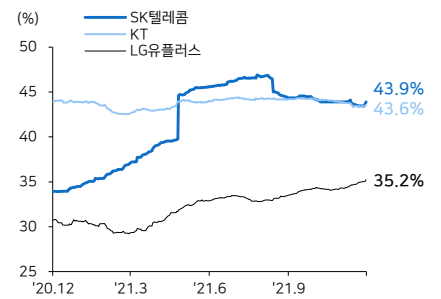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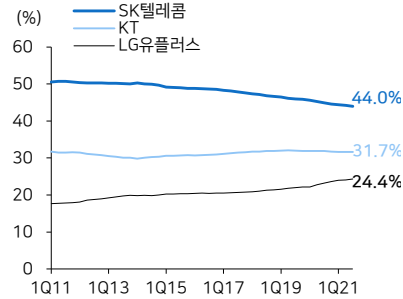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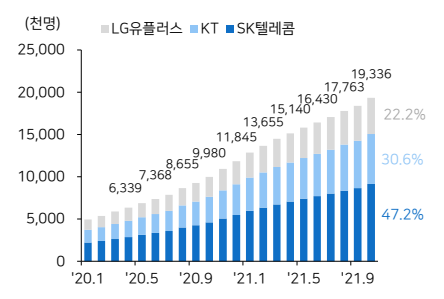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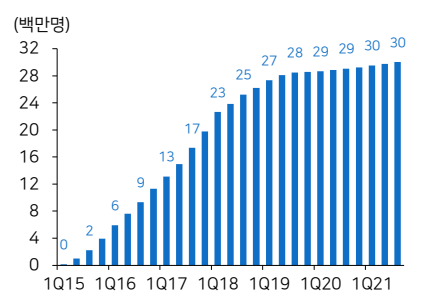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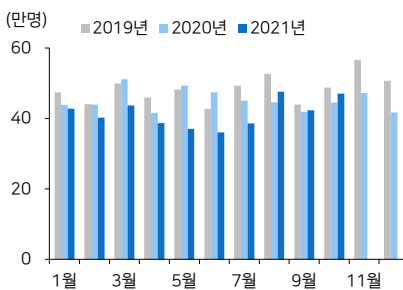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적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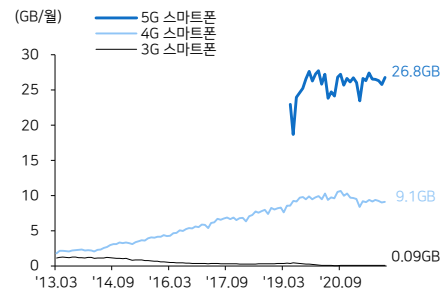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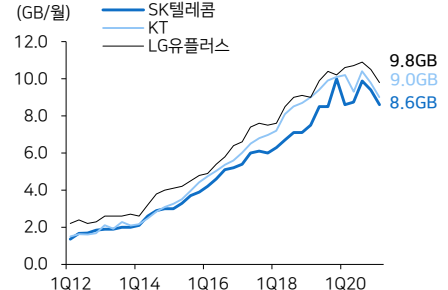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